

제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발표를 맡은 ○○○입니다.
 여러분은 성적표를 확인할 때 무엇부터 보시나요? (대답을 듣고) 네.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받은 원점수를 평균 점수와 비교해 보며 본인이 시험을 잘 친 편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네요. 그런데 평균 점수가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 다음 자료를 보시죠.

	A반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편차
국어	70, 67, 65, 63, 60	65	3.4
수학	100, 63, 60, 52, 50	65	18.2

이 자료를 보면 A반의 국어와 수학 시험 평균 점수가 65점으로 같습니다. 단순히 원점수와 평균 점수만 비교한다면 각 과목에서 63점을 받은 학생은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시험을 못 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평균 점수는 100점이라는 점수로 인해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실제 수학에서 63점을 받은 학생은 반에서 수학 시험을 두 번째로 잘 친 학생입니다.

집단 내의 이러한 상대적 위치를 점수화한 것을 백분위라고 합니다. 백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데요, 국어 시험의 백분위가 96이라면 본인은 상위 4%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분위는 평균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집단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분위에서는 원점수의 차이 정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성적표에서는 백분위와 더불어 표준점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죠.

$$\text{표준점수} =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 점수}}{\text{표준편차}} \times 20 + 100$$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점수가 평균 이상일 때 동일한 원점수를 받더라도 평균 점수가 낮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표준점수는 높아집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국어 만점의 표준점수가 125점이고, 수학 만점의 표준점수는 140점이었습니다. 같은 원점수인데 왜 수학의 표준점수가 더 높을까요? (대답을 듣고) 네. 수학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원점수만 보고 성적이 낮게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적표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성장을 위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성적표, 이제부터라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위 발표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발표 내용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학생이 제시한 자료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평균 점수가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을 활용하고 있다.
 - 평균 점수가 특정 점수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을 활용하고 있다.
 - 표준점수와 백분위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을 활용하고 있다.
 -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집단의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을 활용하고 있다.
 -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에 따라 원점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을 활용하고 있다.
- <보기>는 학생들이 발표를 들은 후 보인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이번 시험에서 지난번 시험보다 국어의 원점수가 낮았는데도 표준점수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좋았어.

학생 2: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성적표 외에 활용되는 분야도 있지 않을까? 발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료를 한번 검색해 봐야겠어.

학생 3: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대학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봐야겠어.

-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접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4 ~ 7] (가)는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실시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해양 생태계의 보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글을 동아리 소식지에 실기 위해 박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박사: 네.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1: 그럼,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TV 뉴스를 보며, 바다 사막화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의 개념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박사: 물론이죠. 바다 사막화란 바닷속에 녹아 있는 탄산 칼슘이 석출되어 해저나 바위를 하얗게 뒤덮는 현상을 말해요. 탄산 칼슘으로 뒤덮인 곳은 해조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바다가 황폐화되기 때문에 바다 사막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학생 1: 그렇군요. 그럼, 바다 사막화는 탄산 칼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박사: 네. 그렇습니다.

학생 2: 그러면 탄산 칼슘이 왜 이렇게 많이 석출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 그러죠. 탄산 칼슘이 석출되는 원인으로는 우선 도시화나 연안 개발에 따른 해양 오염을 들 수 있어요. 연안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콘크리트 원료의 약 63%가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탄산 칼슘이 증가하는 것이죠. 또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때문에 탄산 칼슘의 석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A]

학생 2: 수온 상승으로 탄산 칼슘의 석출이 증가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 주시겠어요?

박사: 네. 탄산 칼슘은 이산화 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잘 용해 되는데, 바닷물에는 다량의 이산화 탄소가 있어 탄산 칼슘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산화 탄소의 용해도가 낮아져 탄산 칼슘의 석출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학생 1: 그렇군요. 탄산 칼슘이 많이 석출되는 것은 이산화 탄소의 용해도가 낮아진 것 때문이군요. 그러면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사: 네. 해조류는 바다 생태계의 1차 생산자 역할을 담당 하면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이러한 해조류가 사라지게 되면 해조류를 먹이로 삼거나 서식처로 삼는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 2: 심각한 문제군요.

박사: 그렇죠. 그래서 육지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처럼 바다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바다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다 식목일’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B]

학생 2: 듣고 보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박사: 네. 불필요한 전기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라면 모두 사막화된 바다를 되살리는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1, 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최근 바다 사막화 현상의 확산으로 해양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는 바닷속에 녹아 있는 탄산 칼슘이 석출되어 해저나 암반을 뒤덮어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해조류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탄산 칼슘은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켜 해조류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든다. 이러한 탄산 칼슘의 석출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 해양 오염, 해조류의 남획, 해조류를 먹고 사는 해양 동물의 급증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바다 사막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의 상승을 지목하고 있다. 탄산 칼슘은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 많이 녹아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탄산 칼슘의 석출이 많아지고 바다 사막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바다 사막화는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바다 사막화로 해조류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해조류를 먹이로 삼고, 거처로 삼는 해양 동물들 역시 생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바다 사막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막화된 바다를 복원하기 위한 바다 숲 조성 사업이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211개소에 26,644ha의 바다 숲을 조성했다고 한다. 또한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과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계 최초로 지난 2013년에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4. (가)의 ‘학생 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에게 인터뷰를 하게 된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 싶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을 재진술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 ⑤ 상대방이 언급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 수정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질문을 통해 ‘박사’가 설명한 내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A]에서 ‘박사’는 ‘학생 2’의 요청에 따라 앞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 ③ [A]에서 ‘박사’는 ‘학생 2’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설문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2’는 ‘박사’가 소개한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B]에서 ‘박사’는 ‘학생 2’의 배경지식을 점검하여 용어의 개념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세운 작문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바다 사막화의 개념을 서두에 제시해야겠어. ①
- 바다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제시해야겠어. ②
- 바다 식목일의 제정 취지와 함께 바다 식목일로 제정된 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③
- 바다의 탄산 칼슘을 증가시키는 연안 개발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④
- 탄산 칼슘이 석출되는 원인 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원인들을 조사하여 추가로 제시해야겠어. ... ⑤

7.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 2’의 조언이다. 이를 고려하여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들임을 고려할 때, 글의 끝부분에 바다 사막화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면 글의 의도가 잘 전달될 것 같아.

- ①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조류의 소멸은 해양 생물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해양 생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바다 사막화는 해양 생태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국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 ③ 바다 사막화의 문제는 해양 생물들의 위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과 같은 생활 속 작은 일들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바다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사막화로 황폐해진 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된다면 건강한 해양 생태계의 재건을 통해 소중한 해양 자원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 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는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하기처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8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교내 축제 운영에 대한 건의문 쓰기
 ○ 예상 독자: 교장 선생님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기술연구 동아리 부장 □□□입니다. 얼마 전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올해 축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 열려진 축제의 형태가 아닌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축제를 건의드립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실제 학교와 유사한 가상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가상 인물인 아바타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 축제를 운영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메타버스 제작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는데, ㉡ 이 경험이 학생들도 메타버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로 학교 축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용 문제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를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저희 동아리에서 전문가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 메타버스를 만드는 활동을 해 본 결과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희 동아리 부원들은 전문가와의 만남 행사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미 주변 학교에서 메타버스로 개최된 축제가 전교생의 큰 호응을 얻어 화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실시하여 메타버스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축제를 운영하면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만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에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들이 활용되어 ㉣ 있지만, 학교 축제를 즐기면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기를 수 있습니다. 축제를 기대하는 학생들의 ㉤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와 함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 ②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 ③ 건의 사항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④ 속담을 활용하여 건의 사항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한다.
 - ⑤ 예상되는 우려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건의 사항이 실현 가능함을 나타낸다.

9.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우리 학교 학생 100명 대상 설문 조사

1.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이 있 나요? 2. 메타버스를 경험한 적이 있 나요?

모름 15%
있음 75%
없음 10%

있음 28%
없음 72%

㉧. 전문가 인터뷰
 “다양한 원인으로 대면 만남이 힘든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새로운 사회적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의 공간에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만나 학급 회의를 하거나 동아리 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서의 활동 내용은 데이터로 남아 있으므로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문 기사
 ○○고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학교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고는 학생들이 직접 메타버스를 만듦으로써 절감한 예산을 축제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학생들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할 수 있었고, 축제 자료를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 ① ㉦-1을 활용하여 둘째 문단에 학생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수치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② ㉧을 활용하여 넷째 문단에 메타버스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를 제시한다.
- ③ ㉨을 활용하여 셋째 문단에 학생들이 직접 메타버스를 만들어 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제시한다.
- ④ ㉧, ㉨을 활용하여 넷째 문단에 메타버스로 축제를 운영할 경우, 관련 자료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추가한다.
- ⑤ ㉦-2, ㉨을 활용하여 첫째 문단에서 메타버스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기존의 축제보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축제를 선호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열린’으로 수정한다.
 - ② ㉡: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이 경험을’로 수정한다.
 - ③ ㉢: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연결 어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있으므로’로 수정한다.
 - ⑤ ㉤: 어법에 맞지 않는 어휘이므로 ‘바람’으로 수정한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말에는 다양한 유형의 된소리되기가 존재하는데, 우선 특정 음운 환경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받침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에는 예외 없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국밥’이 [국빱]으로, ‘(길)을 걷다’가 [걸따]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음운 환경이 같더라도 된소리되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첫째, 용언의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ㄱ, ㄷ,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나는 신발을 신고 갔다.’에서 ‘신고’가 [신꼬]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이다. ‘습득물 신고’의 ‘신고’는 음운 환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ㅂ, ㅅ’이 연결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물질(物質)’이 [물짚]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이다. ‘물잡자리’는 음운 환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어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로 시작하는 체언이 올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살 것’이 [살 꺼]으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유형의 된소리되기는 음운 환경 외에도 ‘용언의 어간’, ‘한자어’, ‘관형사형 어미’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A] 한편,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코+등’은 [코똥/콧똥]으로, ‘손+바닥’은 [손빠닥]으로 발음된다. 이때 ‘코+등’처럼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한자어끼리의 결합이 아닐 때에는 ‘콧등’과 같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두 단어가 대등한 관계일 때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앞말이 뒷말의 ‘시간, 장소, 용도’ 등을 나타낼 때는 잘 일어난다. 그 이유는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ㅅ’과 관련이 있다. ‘손바닥’은 중세 국어에서 ‘숄바당’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는 ‘손+ㅅ+바당’ 즉, ‘손의 바당’으로 분석된다. 이 ‘ㅅ’의 흔적이 ‘손빠닥’을 거쳐 [손빠닥]이라는 발음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음운 환경이 같은 ‘손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손’과 ‘발’은 관형격 조사로 연결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된소리되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밥을) 먹다’와 ‘(눈을) 감다’에서 일어난 된소리되기는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유형이다.
- ② ‘말다툼’과 달리 ‘밀도(密度)’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 ③ ‘납득’과 같이 ‘ㅂ’ 받침 뒤에 ‘ㄷ’이 오는 음운 환경에서는 예외 없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④ ‘술개’와 달리 ‘줄 것’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관형사형 어미’라는 조건 때문이다.
- ⑤ ‘삶과 죽음’의 ‘삶과’와 달리 ‘(고기를) 삶고’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삶고’가 용언이기 때문이다.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단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공부방(工夫房)[공부빱]
- 아랫집[아래짚/아래짚]
- 콩밥[콩빱], 아침밥[아침빱]
- 논밭[논반], 논바닥[논빠닥]
- 불고기[불고기], 물고기[물꼬기]

- ① ‘공부방’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공부’가 뒷말의 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이겠군.
- ② ‘아랫집’에 ‘ㅅ’을 받침으로 표기한 것은 ‘콧등’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겠군.
- ③ ‘콩밥’과 달리 ‘아침밥’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침’이 뒷말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겠군.
- ④ ‘논바닥’과 달리 ‘논밭’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합하는 두 단어가 대등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겠군.
- ⑤ ‘불고기’에서 ‘물고기’와 달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중세 국어에서 ‘불+ㅅ+고기’로 분석되기 때문이겠군.

1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며, 더 나눌 경우 원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 우리 아기만 맨발로 잔디밭에서 놀았다.

- ① ‘우리’는 ‘우’와 ‘리’로 나누면 뜻이 사라지므로 하나의 형태소이다.
- ② ‘아기만’은 ‘아기’와 ‘만’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 ③ ‘맨발’은 ‘맨-’과 ‘발’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 ④ ‘잔디밭’은 ‘잔디’와 ‘밭’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 ⑤ ‘놀았다’는 ‘놀았-’과 ‘-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14.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 ~ ㉢의 밑줄 친 안긴문장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 안긴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 그가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 나는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을 깨달았다.
 ㉢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 수박은 매우 달았다.

- ① ㉠의 안긴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② ㉡의 안긴문장은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 ③ ㉢의 안긴문장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다.
- ④ ㉠의 안긴문장은 용언을 수식하고, ㉢의 안긴문장은 체언을 수식한다.
- ⑤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있고,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15.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묻다² ㉠ [묻고, 물어, 물으니]
 ① **【...에 ...을】** 물건을 흠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쌓아 뒀다.
 ¶ 화단에 거름을 물어 주다.
 ② **【...에 ...을】 / 【...을 ...으로】**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 깊이 숨기어 감추다.
 ¶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과거의 일로 물어 두고 싶어 했다.
 ③ **【...에 ...을】 / 【...을 ...으로】** 얼굴을 수그려 손으로 감싸거나 다른 물체에 가리듯 기대다.
 ¶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묻다³ ㉡ [묻고, 물어, 물으니]
【...에/에게 ...을】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
 ¶ 모르는 문제를 친구에게 물었다.

- ① '묻다²'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로군.
- ② '묻다²'와 '묻다³'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것을 보니 동음이의어겠군.
- ③ '묻다²-①'의 용례로 '아우는 형의 말을 비밀로 물어 두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묻다²'와 '묻다³'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활용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군.
- ⑤ '묻다³'의 용례에서 '물었다'는 '질문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겠군.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중화(中華)사상은 한족(漢族)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하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상이다.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하여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17세기에 이민족이 ㉠ 세운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였지만,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하였다. 당시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禽獸)는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으로 이어졌다.

18세기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때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파가 등장하였다. 그중 홍대용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며 가지게 된 한족의 문물로 보았다. 이런 생각은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한 것으로, 그가 저술한 「을병연행록」에서도 발견된다. 이를 통해 이때까지도 그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과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 가며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산문답」을 저술하였다.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 주는 것은 「의산문답」에 실려 있는 ㉡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이다.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하고,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하였다.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은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상하나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하늘은 무한하여 형태를 알 수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무한 우주설을 주장하였다.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이다.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이 땅이 무한한 우주에 비해 티끌만큼도 안 되며,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중화와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며,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리려 했던 양반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홍대용의 사상은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6. 다음은 학생이 읽을 글 중 작성한 독서 활동지이다. 학생의 활동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문단까지 읽고 내용을 정리한 후,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확인하며 읽어 보자.

읽은 내용 정리	
○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후 조선에서는 북벌론과 척화론이 나타남. ①	
○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북벌이 힘들어지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함. ②	
○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파가 등장하였고, 그중 홍대용은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여 사상을 전환하고 「의산문답」을 저술함.	

↓

이어질 내용 예측	확인 결과
○ 홍대용이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여 깨달은 점이 언급될 것이다.	하늘이 등글다는 것을 깨달음. ③
○ 「의산문답」의 내용이 언급될 것이다.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을 설명함. ④
○ 홍대용이 아닌 다른 북학과 학자들의 사상이 언급될 것이다.	언급되지 않음. ... ⑤

17. <보기>의 대화를 읽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갑: 천지 사이의 생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합니다. 동물과 초목은 지혜가 없고 깨달음도 없으며, 오륜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보다 귀하고, 초목은 동물보다 천합니다.

을: 오륜은 사람의 예의입니다. 무리 지어 다니고 소리를 내어 새끼들을 불러 먹이는 것은 동물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떨기로 나서 무성해지는 것은 초목의 예의입니다.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지만, 사물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똑같습니다.

- ① 갑은 귀한 대상과 천한 대상을 나누어 생각한다는 점에서 송시열과 공통점이 있다.
- ② 갑이 동물보다 사람을 높게 평가한 것은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③ 을이 동물과 초목이 각자의 예의가 있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 ④ 을이 사물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 ⑤ 을이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똑같다고 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는 홍대용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18. ㉠과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을 통해 조선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 ② ㉠과 ㉡은 청을 오랑캐라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되었다.
- ③ ㉠은 북벌론의 바탕이 되었고, ㉡은 척화론의 바탕이 되었다.
- ④ ㉡은 홍대용이 ㉠에서 벗어났음을 보여 주는 학설이다.
- ⑤ ㉡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을 홍대용이 발전시킨 것이다.

19. <보기>는 심화 학습을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 (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중국 의관이 변한 지 이미 100년이 넘은지라 지금 천하에 오직 우리 조선만이 오히려 명나라의 제도를 지키거늘, 청나라에 들어오니 무식한 부류들이 우리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가련치 않겠는가? (중략) 슬프다! 변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기고 백 년이 넘도록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 홍대용, 「을병연행록」 —

(나)
피와 살이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강토를 지키고 있으면 다 동등한 국가이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므로 그가 쓴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은 당연하다. 그가 바다를 건너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주나라 밖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곳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춘추』가 나왔을 것이다.
— 홍대용, 「의산문답」 —

- ① (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홍대용이 중화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 조선만이 명나라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에서, 홍대용이 조선을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 변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겼다고 한 것에서, 홍대용이 청나라와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물을 구별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려는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나는군.
- ⑤ (나):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이 상대적이라는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나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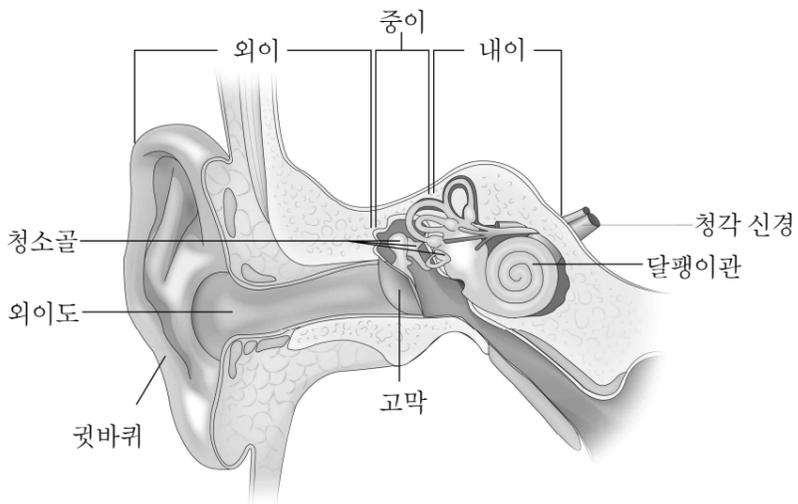
20. 문맥상 ㉠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 ②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 ③ 집을 지을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다.
- ④ 두 귀를 쫓곳 세우고 말소리를 들었다.
- ⑤ 도끼날을 잘 세워야 나무를 쉽게 벨 수 있다.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자 녹음 장치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들리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이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매질의 진동이 내이에 도달하여 달팽이관 속 림프액을 진동시켜 섬모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전기 신호가 청각 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됨을 의미한다. 이때 소리가 내이에 도달하는 방식으로는 외이와 중이를 거치는 공기 전도와 이를 거치지 않는 골전도가 있다.



공기 전도는 공기를 매질로 소리가 내이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체의 진동이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면 귓바퀴가 이 진동을 모아 귓속으로 보내고, 그 결과 진동은 외이도를 지나게 된다. 귓바퀴와 외이도 등 진동이 지나가는 각 지점에서는 소리의 공명이 발생한다. 공명이란 공명 주파수*에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외이도의 경우 공명 주파수는 성인 기준으로 2,500~2,700Hz이다. 공명 주파수는 외이도의 길이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외이도의 길이가 성인보다 짧은 유아는 공명 주파수가 더 높다. 이러한 공명에 의해 증폭된 진동은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의 진동은 청소골에서 더욱 증폭되어 내이에 전달된다.

이에 반해 골전도는 귀 주변 뼈를 매질로 소리가 내이에 바로 전달되는 것이다. 대화할 때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에는 성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공기 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와 골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가 함께 있다. 자신의 목소리 중에서 20~1,000Hz의 소리는 골전도로는 잘 전달이 되지만, 외이와 중이에서 공명이 잘 일어나지 않아 공기 전도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골전도를 통해 들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므로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편 외이와 중이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골전도를 통해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한 보청기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어폰에도 골전도의 원리가 이용되고 있다. 이어폰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내부 자기장을 형성하는 자석과 보이스코일이 있다. 보이스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하면 내부 자기장에 의해 보이스코일에 인력과 척력이 교대로 작용하여 보이스코일에 진동이 발생한다. 이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주기를 짧게 할수록 주파수가 높아져 높은 음의 소리가 난다. 또 전류를

세계 할수록 진폭이 커져 음량이 높아진다. ㉠ 일반적인 이어폰은 이러한 진동을 공기를 통해 전달하는데, ㉡ 골전도 이어폰은 귀 주변 뼈에 진동판을 밀착하여 진동을 내이로 직접 전달한다.

골전도 이어폰은 일반적인 이어폰과 달리 귀를 막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귀 내부가 습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고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 또 야외 활동 시 착용해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해도 내이는 자극이 되므로 장시간 사용하면 청각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공명 주파수: 공명 현상이 일어나거나 공명에 의해 강해지는 주파수.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리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이어폰 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고 앞으로 전개될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 ③ 청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언급하고 이를 절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골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분석하고 있다.
- ⑤ 청각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2.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은 음의 소리가 난다.
- ② 고막의 진동은 청소골을 통과할 때 증폭된다.
- ③ 외이도의 길이가 짧을수록 공명 주파수는 높아진다.
- ④ 이어폰의 보이스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세지면 음량이 높아진다.
- ⑤ 20~1,000Hz의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23.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소에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었으므로
- ② 스피커에서 나온 녹음된 목소리는 내이를 거치지 않고 뇌에 전달되므로
- ③ 전자 장치의 전기적 에너지로 인해 청각 신경이 받는 자극의 크기가 커졌으므로
- ④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에는 골전도로 전달되는 주파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므로
- ⑤ 자신이 말할 때 듣는 목소리에는 녹음된 목소리와 달리 외이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가 빠져 있으므로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난청이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외이도에서 뇌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 중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그 중 전음성 난청은 외이와 중이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 경우 소리가 커지면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질 수 있다.

이와 달리 감각 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었음에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달팽이관의 청각 세포나, 청각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각 신경 또는 중추 신경계 이상 등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 소리가 커져도 그것을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지지 않는다.

- ① 골전도 이어폰은 장시간 사용해도 감각 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지는 않겠군.
- ② 청각 신경의 이상으로 인한 난청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어폰의 음량을 높이면 잘 들을 수 있겠군.
- ③ 자신이 말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각 신경성 난청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고막의 이상으로 난청이 있는 경우 골전도의 원리를 이용한 보청기는 사용해도 효과가 없겠군.
- ⑤ 전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은 골전도 이어폰의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일반적인 이어폰의 소리는 들을 수 있겠군.

2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교류 전류를 진동으로 바꾸고 공기를 통해 그 진동을 내이에 전달한다.
- ② ㉡은 진동판을 통해 뼈에 진동을 발생시켜 소리를 내이로 전달한다.
- ③ ㉠은 ㉡과 달리 섬모의 흔들림을 유발하여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 ④ ㉡은 ㉠과 달리 야외 활동 시 사용해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내부 자기장과 교류 전류로 인해 인력과 척력이 발생한다.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니리] 우리 세상 같고 보면 일품 제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수국(水國)이라 물고기 등물이 각각 벼슬 이름을 맡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용국의 벼슬 이름이 사기(史記)에 있던 바라,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자진모리]

승상은 거북, 승지는 도미, 판서 민어, 주서 오징어, 한림 박대, 대사성 도루묵, 방첨사 조개, 해운공 방게, 병사 청어, 군수 해구, 현감 홍어, 조부장 조기, 비변랑 낭청 장

[A] 대, 성대, 청달이, 가오리, 좌우 나줄, 금군 모조리, 상어, 솔치, 눈치, 준치, 삼치, 멸치, 미끈 장어, 사수, 자가사리며, 꺾지, 금리어, 장뚱어, 망둥이, 빠각 빠각 들어와서 대왕전에 절을 꾸벅 꾸벅 꾸벅 꾸벅 하는구나.

[아니리] 용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경들 중에 세상을 나가서 ㉠ 천년 토끼 간을 얻어 짐의 병을 구원할 자 뉘 있나뇨?”

좌우 신하들이 서로 보기만 하고 묵묵부답이 되었겠다. 용왕이 또다시 탄식하시는데,

[중모리] 왕이 툭툭 탄식한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 개자추와 광초망신 기신*이는 죽을 임금을 살렸건마는,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어느 누가 날 살리리오?”

정언 잉어가 여짜오되,
“세상이라 허는 곳은 인심이 박하여 지혜 용맹 없는 자는 성공하지를 못하리다.”

“좌승상 거북이 어떠하뇨.”

“승상 거북은 지력이 넓사오나 복판이 모두 다 대모*인 고로, 세상에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복판 떼어 대모장도, 밀이개살짝, 탕건 묘또기, 질쌘지 끈까지 대모가 아니면은 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아니리] 이때 해운공 방게가 열 발을 짝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서 공손히 엎드리더니, 장담하여 말을 하는데,

[중중모리] “신의 고향 세상이오.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벽계(靑林碧溪) 산천수 가만히 몸 담그고 천봉만학(千峯萬壑)을 바라보니, 산토끼 달토끼 안면이 있사오니,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 안어다가 대왕전 바치리다.”

[아니리] “네 말은 그러하나,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폭 솟았기로 왔다갔다를 잘하니, 가다가 뒷걸음질을 잘할 테니, 저리 물렀거라.”

[중모리] “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정언이 여짜오되,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곳곳 방신제도*가 종사오나, 옛글에 이르기를, 흘조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 하였으니, 세상에 나가오면, 흘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루 필필 필필 날아 들어, 흘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흘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하다가 어부에게 잡히어 속절없이 죽을 터이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아니리] “그리하면 어찌하면 옳단 말이냐?”

[자진모리] “그럼 수문장 메기가 어떠한고?”

정언이 여짜오되,
“메기는 수염 길고 입 크고 풍채 좋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룬 고로, 세상을 나가오면 요깃감을 얻으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기델 제, 사립 쓴 어용들이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지 않는지라, 입감 꿰어서 물에 풍, 탐식으로 덜컥 삼켜
꿈쩍없이 죽게 되면 탁 채어 낚어다가 인간의 이질, 복질, 설
사, 배앓이 하는 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아니리] 한참 이리 결정을 못하고 있을 적에, 저 영덕전 뒤에서
한 신하가 들어오는데,

[진양조] 영덕전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눈 작고 다리 짧고,
목 길고 주둥이는 까마귀 부리 같구나. 등에다 방패를 지고
양금양금 기어 들어오더니, 몸을 굽혀 재배하고 상소를 올리
거늘,

[아니리] 왕이 상소를 받아 보시니, 별주부 자라였다.
(중략)

[아니리] 용왕이 상소 받아 보시고 칭찬 왈,
“신하라! 별주부가 신하다, 충신이라! 별주부가 충신이로다.
참으로 충신일다.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이 다 세상 사람의 고
기밥이 된다 하니, 그 아니 원통한고?”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은 네 발이 갖춰 있어 강상(江上)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와 인간에게 잡힐 걱정은 없사오나, 바닷속에 태어나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畫像)을 하나 그려주사이다.”

“글랑은 그리 하여라.”
[중중모리]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 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호 유리로 만든
벼루에 비단같은 물결 담은 거북 연적 오징어로 먹 갈아, 붓을
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 묻히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B] 천하명산승지간의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두견앵무 지지 울
제 소리 들던 귀 그리고, 난초지초 온갖 향초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봉래 방장 운무* 중의 냄새 잘 맡던 코 그리고,
대한엄동 설한풍 어한(禦寒)*하던 털 그리고, 만화방창 꽃
밭에서 필필 뛰던 발 그리고, 두 귀는 쫓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리가 뭉툭,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순데,
녹수청산의 애굽은 장송, 휘느러진 버드나무, 들랑달랑 오
락가락 엉거주춤 기는 토끼 산토끼 달토끼 얼핏 그려, 아
미산 위에 뜬 반달이 가을이 되었다는 말이 이에서 더할
쏘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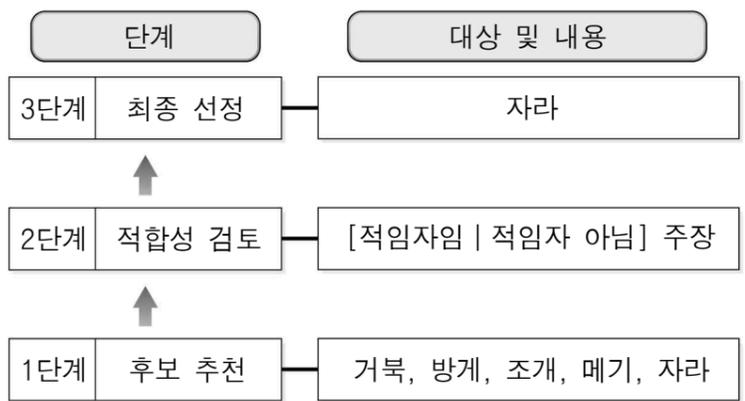
“아나, 옳다, 별주부야. 어서 가지고 나가거라.”
- 유성준 창본, 「수궁가」 -

* 할고사군 개자추와 광초망신 기신: 임금을 위해 희생한 고사 속 충신들.
* 대모: 바다거북의 등껍질. 장식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쓰임.
* 방신제도: 제 몸을 지키는 방법.
* 봉래 방장 운무: 신선이 사는 산의 안개.
* 어한: 추위를 막아주는.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용왕은 자신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다투는 신하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 ② 잉어는 지혜와 용맹이 있는 인물이 토끼의 간을 얻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잉어는 승상인 거북이 다양한 재주가 있으나 지략이 없는 것을 한탄한다.
 - ④ 방계는 수국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고향인 육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 ⑤ 화공은 토끼의 모습을 모르는 자라를 돕기 위해 육지로 동행한다.

27.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용궁의 모습을, [B]는 육지의 모습을 묘사하여 공간적 배경을 대비하고 있다.
 - ② [A]는 수국의 신하를, [B]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열거하여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A]는 신하들의 생활 모습을, [B]는 토끼의 생활 모습을 제시하여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는 용왕이 처한 문제를, [B]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 ⑤ [A]는 용궁을 긍정적으로, [B]는 토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인물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을 선정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단계’에서 방계와 자라는 스스로 후보로 나선다.
- ② ‘2단계’에서 용왕은 방계의 눈이 솟아 있어 다른 동물들 눈에 띄기 쉬우므로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③ ‘2단계’에서 잉어는 조개가 홀조와 서로 물고 싸우다가 인간에게 잡힐 것이므로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④ ‘2단계’에서 잉어는 메기가 탐식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인간들에게 잡힐 것이므로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⑤ ‘3단계’에서 자라가 선정된 것은, 망보기를 잘하여 인간에게 잡힐 염려가 없다는 자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달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달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셋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 짝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 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 골목에서 자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자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아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르데도 자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 함민복,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

2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의 움직임에서 느끼는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작품의 표면에 나타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과의 소통이 확대된 시간이고, ㉡는 대상과의 소통이 단절된 시간이다.
- ② ㉠은 대상과의 유대감을 느끼는 시간이고, ㉡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③ ㉠은 대상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게 된 시간이고, ㉡는 대상을 통해 삶의 권태를 느낀 시간이다.
- ④ ㉠은 대상의 소멸로 인해 슬픔을 느낀 시간이고, ㉡는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한 시간이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는 시간이고, ㉡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 대비되는 정서나 태도, 이미지가 제시될 때,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상반되거나 이질적인 정서나 태도, 이미지들이 함께 나타날 때는 표면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시인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표면적 진술 너머에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을 보여 준다.

- ① (가): ‘섭섭해 우웁네다’와 ‘아직 기달리고 있을 테요’에서는 꽃이 사라진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면서 화자의 기대감이 강조되는군.
- ② (가): ‘찬란한 슬픔’은 모순된 진술처럼 보이지만, 표면적 진술 너머에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군.
- ③ (나): ‘연약한 반죽’과 ‘튼튼한 미래’에서는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건강한 삶을 강조하고 있군.
- ④ (나): ‘이상한’과 ‘눈물처럼 아름다워’에서는 중국집 젊은 부부를 향한 태도가 대비되면서 중국집 젊은 부부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부각되고 있군.
- ⑤ (나): ‘슬픔도 배불렀다’는 모순된 진술을 통해 중국집 젊은 부부의 고단한 삶과의 대비에서 느끼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군.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려고
 어와 **너**로구나 이 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입** 사랑 받을 만할까만
 어떤 일로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니
 나도 입을 믿어 굳뜻이 전혀 없어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더니
 반기시는 낮빛이 전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그리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소이다
 입을 모셔 있어 입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꼬
 (중략)

반벽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어느덧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어라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자 하니
눈물이 이어져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어 오니
 방정맞은 닭 울음에 잠을 어찌 깨었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입이 어디 간고
 바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입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각시님 달이야커녕 곳은 비나 되소서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백옥경: 옥황상제가 지내는 궁궐.
 * 조물: 조물주.

(나)

손[客]이 **주옹(舟翁)**에게 물었다.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팔 것이 없고, 뱃사공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오고감이 없구려.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싸여 목숨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
 미인가?”

주옹이 대답했다.
 “아아,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변
 덕스러운 것이어서, ㉡ 평탄한 땅을 디디면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조심하는 법이다. 두려워 조심하면 든
 든하게 살지만,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되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꼴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
 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끔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
 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 비록 ㉢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
 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
 대한 물결이요, 인심(人心)이란 ㉣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
 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
 다는, 오히려 ㉤ 한 일 조각배로 만 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을 보니, 안
 전한 때는 후환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
 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그대는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 하는가?”
 - 권근, 「주옹설(舟翁說)」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점층적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반어적 진술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군 가사는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
 하며 충성심을 드러낸 가사 작품들을 가리킨다. 「속미인곡」은
 정철이 정쟁(政爭)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낙향하였을
 때 쓴 연군 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 ① ‘천상 백옥경’은 화자가 ‘입’과 지냈던 곳으로 임금이 있는 궁궐에 대응된다.
- ② ‘내 몸의 지은 죄’가 ‘조물의 탓’이라는 화자의 한탄을 통해 작가가 자신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화자가 꿈속에서 ‘입’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이어져’한다고 하는 것에서 임금이 대한 작가의 걱정과 그리움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 ④ ‘입’과 헤어지게 된 화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불쌍한’으로 표현한 것에서 임금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 수 있다.
- ⑤ ‘낙월’이 되어서라도 ‘입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려’는 화자의 모습에서 임금이 대한 작가의 충성심을 알 수 있다.

34.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가)와 (나)의 인물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시나 수필을 창작할 때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 간의 대화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인물들은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심 인물은 대화를 주도하며,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인물은 중심 인물의 말을 이끌어내거나 중심 인물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조적 인물, 중심 인물과 대립하면서 중심 인물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대립적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물	특징적 발화	인물 유형	인물의 역할	
(가)	각시	내 사실 들어 보오	중심 인물	대화를 주도함.	
	너	누굴 보러 가시려고	주변 인물	중심 인물의 말을 이끌어냄.	①
		그리 생각 마오	주변 인물	중심 인물과 대립함.	②
		곳은 비나 되소서	주변 인물	대안을 제시함.	③
(나)	주옹	그대는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 하는가?	중심 인물	작가 의식을 드러냄.	④
	손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 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주변 인물	중심 인물에게 문제 제기를 함.	⑤

35.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변화불측한 특성을 가진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 ② ㉡: '주옹'이 사는 곳과 대비되는 장소로,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 ③ ㉢: 조각배의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로, '주옹'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다.
- ④ ㉣: 욕심을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 ⑤ ㉤: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곳이지만, 인간 세상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주옹'이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다.

[36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제약 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 검정은 ㉠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전자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로 '대립(對立) 가설'이라 하고 후자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는 반대되는 가설인 '귀무(歸無)가설'이라 한다.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해 보면 된다.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지는 않는다. 대신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는데 관찰한 결과 ㉡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영자는 ㉢ 귀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고,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자. 이때는 귀무가설을 버릴 수 없다. 이처럼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경영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1종 오류'라고 한다. 앞선 예에서 실제로는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을 '2종 오류'라고 한다. 실제로는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이다.'라고 가정한다.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1종 오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2종 오류에 해당한다.

오류들 중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1종 오류이다.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2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1종 오류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라면 백 번의 시행 중 다섯 번 이내로 1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지만, 이 값을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유의 수준은 더 낮게 잡아야 한다.

36. 가설 검정에 대하여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은 무엇인가?
- ②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설은 무엇인가?
- ④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함께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1종 오류와 2종 오류 중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오류는 무엇인가?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은 채택될 수 없다.
- ② 판결에서 대립가설의 기각 여부는 피고인이 판단한다.
- ③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 ④ 귀무가설은 참과 거짓을 알기 전까지는 거짓으로 간주한다.
- ⑤ 신약 개발을 하는 경영자가 채택하고 싶은 것은 대립가설이다.

3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분		실제 상황	
		귀무가설 참	귀무가설 거짓
의사 결정	귀무가설 기각 못함	A	B
	귀무가설 기각함	C	D

- ①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A와 C의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경영자가 신약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A와 B의 경우에 해당한다.
- ③ A와 D는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법원이 B를 줄이면,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수가 늘어난다.
- ⑤ 제약 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는 약의 효능이 없어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권과 관련된 판단일수록 값을 크게 설정한다.
- ②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 ③ 값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 ④ 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분석할 때 결정하는 값이다.
- ⑤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 개수의 최대 허용 범위이다.

40.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 ② ㉡: 귀무가설과 어긋난
- ③ ㉢: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기각하고
- ④ ㉣: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가설
- ⑤ ㉤: 1종 오류와 2종 오류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시골 학교로 전학 온 '나'는 힘으로 학급을 장악하고 있던 석대에게 저항하다 이내 굴복한다. 그러나 김 선생이 부임한 후 아이들이 석대의 비행을 폭로하고 석대는 학교를 떠난다. 학교를 떠난 석대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괴롭힌다.

교실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혼란과 소모를 강요한 것은 의식의 파행이었다. 선생님의 격려와 근거 없는 승리감에 취한 우리 중의 일부는 지나치게 앞으로 내달랐고, 아직도 ㉠ 석대의 질서가 주던 중압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또 너무 뒤쳐져 미적거렸다. 임원진으로 뽑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쪽은 너무도 민주의 대의에 충실히 우왕좌왕하는 다수와 함께 우왕좌왕했고, 또 한쪽은 석대 식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해 은근히 작은 석대를 꿈꾸었다. 거기다가 새로 생긴 권의함은 올바른 국민 탄핵제도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밀고와 모함으로 일주일에 하나씩은 임원들을 갈아치웠다.

(중략)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 안팎의 도전들은 차츰 해결되어 갔다. 먼저 해결된 것은 석대 쪽이었는데, 그 해결을 유도한 담임 선생님의 방식은 좀 특이했다. 우리에게서 거의 불가항력적이었던 어찌 된 셈인지 담임선생님은 석대 때문에 결석한 아이들을 그 어느 때보다 호된 매질과 꾸지람으로 다루었다. "다섯 놈이 하나한테 하루 종일 끌려 다녀? 병신 같은 자식들." "너희들은 두 손 묶어 놓고 있었어? 멍청한 놈들." 그렇게 소리치며 마구잡이 매질을 해댔 때는 마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영문을 몰랐으나 그 효과는

오래잖아 나타났다. ㉠우리 중에서 좀 별나고 당찬 소년거리 아이들 다섯이 마침내 석대와 맞붙은 것이었다. 석대는 전에 없이 표독을 떨었지만 상대편 아이들도 이관사판으로 덤비자 결국은 혼자서 다섯을 당해내지 못하고 꿈무늬를 뺐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란 ㉡책 한 권씩을 나눠 주며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여럿 앞에서 그들을 추켜세웠다. 그러자 다음 날 미창 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뒤 석대는 두 번 다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거기 비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대하는 담임선생님의 태도는 또 앞서와 전혀 달랐다. 잘못된 이해나 엇갈리는 의식 때문에 아무리 교실 안이 시끄럽고 학급의 일이 갈팡질팡해도 담임선생님은 철저하게 모르는 척했다. 토요일 오후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돼도, 급장 부급장이 건의함을 통해 밀고된 대단치 않은 잘못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소동이 나도 언제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 충고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A] 그 바람에 우리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거의 한 학기가 다 소비된 뒤였다. 여름방학이 지나자 벌써 서너 달 앞으로 닥친 중학 입시가 말깨나 할 만한 아이들의 주의를 온통 그리로 끌어들이는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험의 교훈이 자정 능력을 길러 준 덕분이 아닌가 한다. 서로 다투고 따지고 부대끼고 시달리는 그 대역섯 달 동안에 우리는 차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껏 그런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던 담임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다.

학교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감과 아울러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차츰 원래대로 회복되어 갔다. 다시 어른들 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질 때만 해도 머뭇거리던 내 시민 의식은 오래잖아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유와 합리에 대한 예전의 믿음도 이윽고는 되살아 났다. 가끔씩—이른테면, 내가 듣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의견 같은데도 공연히 떠드는 게 좋아 씨알도 먹히지 않는 따지기로 회의만 끝없이 늘어 놓는 아이들을 볼 때나,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작업에 요리조리 빠져나가 우리 반이 딴 반에 되지게 만드는 아이들을 보게 될 때와 같은 때—석대의 질서가 가졌던 편의와 효용성을 떠올릴 때가 있었지만 그것도, 금지돼 있기에 더 커지는 유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석대는 미창 쪽 아이들과의 싸움이 있고 난 뒤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읍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얼마 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나)

S#136 교실 (아침)

얼굴들에 상처 난 아이들 몇 명을 중심으로 모여 수근거리고 있는 아이들. 그 교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뚫고 들어오는 김 선생. 급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로 우당탕거리던 교실이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진다. 교실 안을 휘 둘러보는 김 선생. 군데군데 비어 있는 몇 개의 자리. 김 선생과 시선이 마주친

상처 난 얼굴의 아이들이 얼굴을 숙인다.

김 선생: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희들! (갑작스런 김 선생의 높아진 음성에 아이들의 고개가 더 숙여진다.) 이렇게 매일 얻어맞고 그게 무서워 결석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기가 죽은 아이들을 굳은 얼굴로 둘러보는 김 선생.) 석대가 그렇게 무서워? 난 너희들 같은 겁쟁이들은 가르치고 싶지 않다. 절대 피하지 마라. 맨손으로 안 되면 돌이라도 들고 싸워라.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 그래도 안 되면 전부 다들 덤벼라. 내 말 알아듣겠나? (아이들 중 몇 명이 죽어가는 소리로 겨우 대답한다.) 다시! 알아듣겠나?

아이들: (조금 커진 소리로) 네.

김 선생: 다시.

아이들: (일제히 힘차게) 네!

S#137 교실 (밤)

나무 의자와 책상 등이 불길에 싸여 있다.

S#138 동 박 (밤)

물을 길어와 교실 안에다 끼얹는 동네 사람들. 서서히 불길이 잡힌다. (F.O)

S#139 (F.I) 같은 장소 (아침)

웅성거리며 모여 드는 아이들. 입을 딱 다문 병태도 섞여 있다. 급하게 뛰어온 김 선생. 주먹을 불끈 쥔다. 병태, 시커먼 병이 나무동치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화단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철쭉과 진달래의 붉은 색이 눈을 어지럽힌다. 교문 쪽으로 먼 시선을 주고 있던 병태. 다시 한번 쓰러져 있는 병을 본다.

병태(내레이션): 그날 이후 엄석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개가한 서울의 어머니를 찾아갔다던가?

S#140 교실 (오후)

칠판에는 ㉢제7차 급장 선거라는 글씨와 후보들의 이름, 개표 결과가 써 있다. 김 선생 교단 위로 올라서면서

김 선생: 좀 혼란했던 기간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각자의 일들을 알아서 처리하고 공동의 일들은 서로 협력해서 처리하는 새로운 6학년 2반이 돼주길 바란다. 급장!

황영수: (㉣단상에 오르지 않고 앞에 나와 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절 불러 주세요. 기꺼이 여러분께 봉사하는 급장이 되겠습니다.

박수 치는 아이들. 전에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를 쳐다보는 병태.

병태(내레이션): 그 후 학교 생활은 정상으로 돌아갔고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석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 이문열 원작, 박종원 각색,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4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의문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회상의 방식을 통해 과거 사건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⑤ 들은 바를 전달하는 형식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할 때, (가)를 (나)로 각색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경우, 갈래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소설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나 대상의 변화를 직접 서술할 수 있으나 시나리오는 이를 장면으로 시각화하거나 영화적 기법을 통해 표현한다. 또한 갈래적 차이에 따른 변화 외에도 각색 과정에서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내용을 삭제 혹은 다른 장면으로 대체하거나 소설에 없던 장면을 추가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김 선생이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이 S#136에서는 ‘다시’를 반복하는 장면으로 대체되어 아이들의 변화에 비관적인 그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에서 아이들이 석대와 맞붙을 수 있게 된 것이 S#136에서는 ‘일제히 힘차게’ 대답하는 모습으로 대체되고 있군.
- ③ S#137의 ‘불길에 싸’인 교실과 S#139의 ‘시커먼 병’ 등을 통해 (가)에 나오지 않는 석대의 방화를 추가하여 그의 보복을 암시하고 있군.
- ④ (가)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된 병태의 내면을 S#140에서는 내레이션 기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에서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S#140에서는 ‘박수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군.

4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급의 일부 임원들이 ‘작은 석대를 꿈꾸’는 것은 아직 ㉠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쉽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③ ㉠은 석대가 아이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 ④ ‘내 의식’이 ‘굴절되었던’ 이유는 ㉠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 ⑤ ‘나’는 ㉠이 학급에 ‘편의와 효용성’을 제공했었지만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석대가 떠난 후 학급이 맞닥뜨린 문제 상황들을 의미한다.
- ② ㉢: 석대와 처음으로 맞붙은 인물들의 특성을 나타낸다.
- ③ ㉣: 다른 아이들도 석대와 맞붙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④ ㉤: 그동안 학급에 여러 차례 혼란이 거듭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 ⑤ ㉤: 새 급장이 아직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5. <보기>는 윗글의 심화 학습을 위해 찾은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이 덕성을 바탕으로 자기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선(共同善)에 대하여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공동선에 대한 토론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목표를 잘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새로 생긴 건의함’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급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군.
- ② ‘학급의 일이 갈팡질팡해도 담임선생님은 철저히 모르는 척’한 것은 아이들이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겠군.
- ③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된 것은 아이들이 공동선을 위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내’가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은 아직 자기 통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겠군.
- 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작업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아이들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시민에 해당하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